



서성배
(사)한국계육협회장

창간
13
주년
에
즈
음
하
여
:

닭고기 산업계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닭고기의 소비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되기 시작했던 “월간 닭고기”가 어느덧 창간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간 닭고기”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회원사 그리고 관련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보다 알찬 정보지로서의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월간 닭고기”가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또한 우리 “월간 닭고기”가 국내 계육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사뭇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업계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가는 닭고기 전문 정보지로서 건실하게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를 비롯 관련업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월간 닭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지금 우리업계는 육계 사육 및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업계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때아닌 AI의 발생으로 업계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운송업계의 파업으로 사료곡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배합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생계운반, 닭고기 운송 등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월간 닭고기”가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월간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산업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운송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닭고기 생산비가 운송비 인상분에 상당하는 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점은 계육업계의 대리점, 유통점, 체인점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계는 그동안 AI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닭고기 산업의 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 해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파고는 한두 번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험난하고 거센 장애요인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 막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까지 우리업계가 최소 생산비도 받지 못하는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보고자 고민하던 사안들이 지난 5월말 무위로 끝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업계 스스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닭고기 매출이 AI 발생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복(伏) 대목과 올림픽 특수로 이어져 업계가 큰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업계 종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월간 닭고기”가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월간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산업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